




탐방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첨단설비와 우수한 품질로 업계선도

인간존중 경영기념, 전 사원 주인의식으로 일류회사 지향

 三永인크製造株式會社

- 1971. 3 삼영인크제조(주) 설립
- 1971. 8 인천공장 준공 및 그라비아인크 생산 개시
- 1974. 8 음셋인크 생산 개시
- 1975. 1 금속인크 생산 개시
- 1977. 4 식관용 내외면도료 생산 개시
- 1980. 7 삼영인크 · 페인트제조(주)와 합병,
삼영인크 · 페인트제조(주)로 회사명 변경
- 1983. 4 UVInk 생산 개시
- 1984. 7 공장 통합
- 1984. 10 성형플라스틱용 도료 생산 개시
- 1986. 12 자본금 증자 ₩449,330,000
- 1988. 11 수성그라비아 플렉스 인크 생산 개시
- 1991. 2 D관용 수성도료 생산 개시
- 1993. 1 점착제 생산 개시
- 1996. 4 콘크리트 수성형 침투성 흡수방수제
생산 개시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수준
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
회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
택하고자 하는 상품의 기준을
그 질이나 가격보다는 제품의
신선함이나 그 포장의 감각성
을 꼽고 있다.

최근 각종 산업시장의 규모
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음료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음료시장은 그 종류가 다양
하고 생산업체 역시도 계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95년 여름부터 음료
시장을 강타했던 식혜만 해도
한 업체에서 성공을 거두자 대
기업을 비롯한 수십개의 업체
들이 식혜시장에 뛰어들 바 있
고 올해 새로운 주음료시장으
로 떠오르고 있는 대추음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
의 음료들 중에서 소비자의 시
선을 이끌어 선택을 받을 수



▲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전경

있는 첫번째 조건은 소비자의 감각을 이해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낸 포장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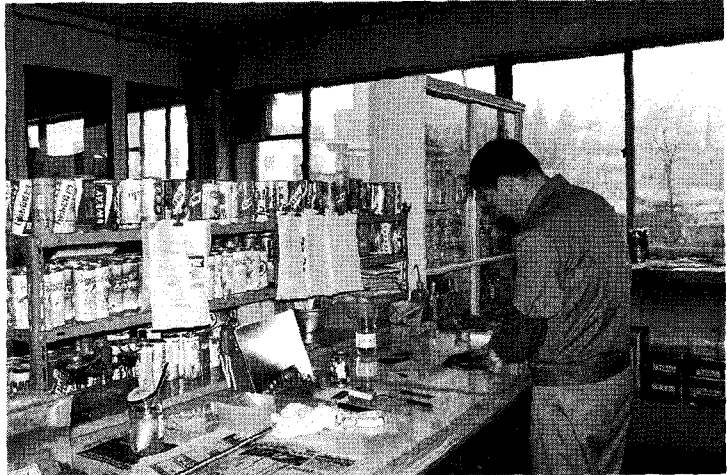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성향의 변화에 따라 식혜나 대추 음료 등 많은 음료들을 담고 있는 캔의 포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관용도료 역시도 다양한 색상과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군포시 당정동에 자리잡은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는 최신 설비와 우수한 품질의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제관도료업체의 선두주자이다.

일본 도요인크(주)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최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정진하고 있는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는 최근 여러 부서로 구분되어 있던 사내조직을 관리팀, 영업팀, 기술팀, 생산팀의 4개 팀체제로 개편했다.

이중 관리팀은 총무, 노무, 전체 공장관리를 담당하며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5명의 직원이 배치된 영업팀은 제품 판매를 담당하며 부산 영업소까지 두고 있다.

도료기술부와 인크기술부로 나뉘어진 기술팀은 기술개발업무부터 품질관리까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도료기술부는



▲ 제관도료 개발 및 검사실

제관도료·플라스틱도료·점착제, 인크기술부는 그라비아인크, 금속인크, 오프셋인크에 대한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기술팀은 항시 소비자들로부터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가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생산팀은 역시 4부로 구성되어 각각의 도료 및 인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도료 및 인크를 생산하고 있는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의 제품 생산비율은 제관도료(금속인크)가 가장 많고 그라비아인크, 플라스틱도료, 그리고 점착제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생산품목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제관

도료는 국내 판매점유율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품질면에서 단연 앞서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으며 금속인크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몇달간은 날씨의 영향으로 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노창균 과장은 “지난 5~6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20~30%이상씩 성장하던 캔 수요량이 최근에는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캔시장은 어두운 전망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폭염이 계속되었고 식혜가 음료시장을 강타했던 작년에도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요량이 많이 신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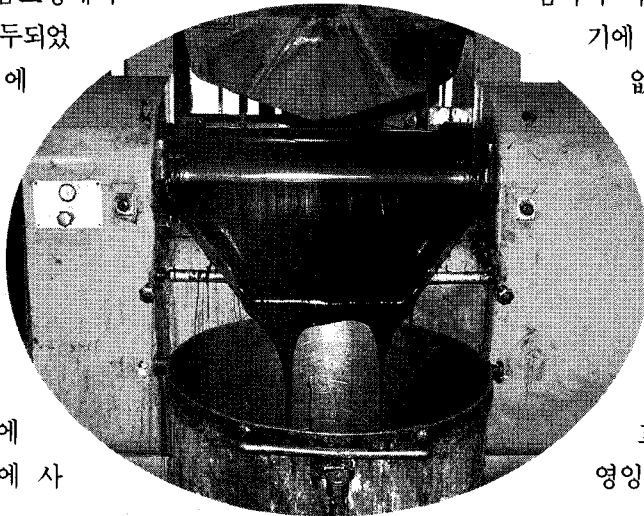
라며 올해도 역시 대추시장의 급신장 성향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에 반해 다른 음료들의 소비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캔 소비량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근래에 들어 식품포장재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잔류용제 문제에 대해 김만업 부장은 “이달 1일부터 6·3제가 실시가 됩니다. 94년 10월쯤 처음 문제시 되었던 잔류용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 OPP필름에 쓰이는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도료를 생산하는 저희 삼영잉크페인트

제조(주)로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7년 업계 최초로 삼진화학과의 공동개발한 비닐수지타입의 OPP저취잉크와 95년 11월부터 선보인 논톨루엔우레탄잉크의 생산 등 최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OPP필름용 잉크에 대해 그 비율을 3·1이하까지 낮추었습니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국내 최고인 삼

영잉크페인트제조(주)의 자긍심을 지켜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금속잉크를 생산할 때는 60℃에서 65kg의 하중으로 3번 섞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금속잉크



▲ 금속인쇄용 잉크의 정제과정

는 3천여가지 이상 색상의 내성잉크로 사용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나 햇빛의 영향에도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관은 폼치 등 그 내용물에 따라 스템온도가 짝어지며 주로 야외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지는 음료용 캔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외선 등에도 변질되거나 녹아나지 않아 제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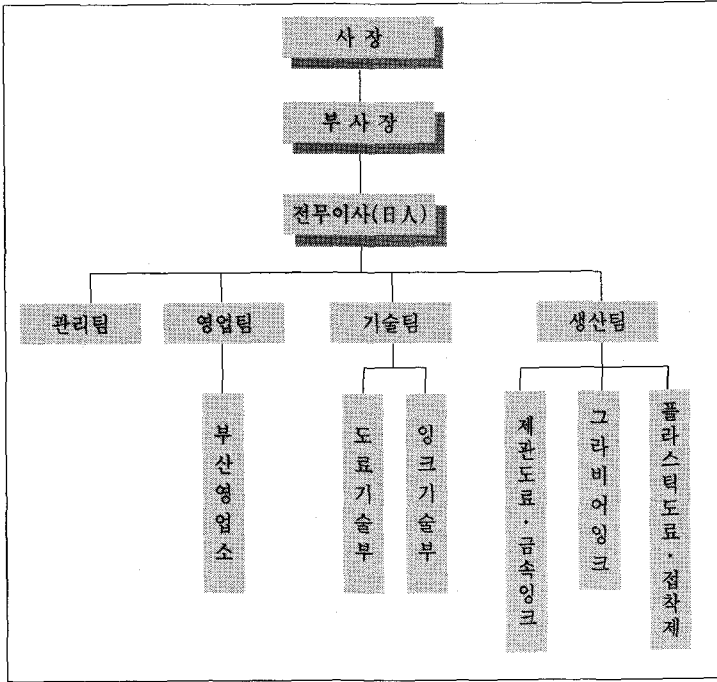
현재 롯데알미늄, 한일제관, 삼진화학, 원지산업, 삼진화학, 삼성전자, LG화학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생산품목의 특성상 식품분야의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들어 사내 기구를 단순화하여 관리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고 업무상의 효율을 극대화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현재 LOT의 단위를 키우는 정도의 증설계획을 가

지고 있다.

약 130여명의 직원들이 4,200평의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주차공간의 부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나 점진적인 신·증설에 의한 직원복지 증진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서로간의 친목도모 및 애사심 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조직도)



▲ 삼영잉크페인트에서 만든 인쇄용 잉크

아끼지 않고 있는 동우회는 볼링, 탁구, 등산, 테니스 등 10여개 팀이 활동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최근 잉크생산업이 3D업종으로 구분되어 그 참여를 꺼리

고 있는데,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라인별 환풍시설 설치, 자체 폐수처리시설 등 작업장 환경개선과 사내 복지향상 등으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해가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의 경

우 약 20% 정도의 자체정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공장 옆으로 도로가 건설되면서 폐기된 상태이지만 이후 개선된 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잉크생산업 역시 강화된 많은 규제들을 받고 있는데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규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체적인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97년부터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해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에 더욱 적극적으로 될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회사에 대한 사랑으로 뭉쳐진 업체였다.

작업장을 돌며 만나는 직원들마다 서로 반갑게 반기고 그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직원들을 보며 노사간의 작은 분쟁조차 없이 국내 최고의 잉크생산제조업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의 이유있는 자신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윤지은기자